

광주 북갑 '친명' 전략공천설 '술술'...거부감 확산

'불법 전화홍보방 의혹' 검찰 압수수색 하루 만에 "제3의 인물 전략공천은 당원·유권자 선택권 박탈"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전화홍보방' 의혹으로 검찰이 정준호 예비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하루 만에 해당 선거구에 대한 '친명 전략공천설'이 돌고 있다.

민주당 경선과 관련, 지역 내 민심이 반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인식되는 광주지역에 대한 전략공천설이 또 다시 나돌아 유권자들의 거부감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북갑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북갑 정준호 예비후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북갑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예비후보 측이 경선 기간 대학생 13명에게 금품을 주기로 하고 전화 홍보방을 운영,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선

관위 고발이 이뤄진 광주 북갑의 경우 후보자 교체와 같은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경선 상대자였던 조오섭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이나, 제3의 인물과의 재경선 등 광주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제3의 인물과의 경선은 사실상 친명(친이재명)계를 쫓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 전략공천 카드는 텃밭인 광주에서 민심을 추스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민심을 역행한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친명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당이 이전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이상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대 총선 당시 광주지역에 전략공천을 선택, 실패한

사태가 있었던 만큼 제3의 인물보다는 지역 정세에 맞는, 유권자들이 수긍할 만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는 물론, 전남까지도 이번 민주당 경선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며 "광주에서의 전략공천은 사실상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시·ACC, 2024 문화중심도시 실현 힘 모은다

강기정 시장, ACC서 정책소품 문화예술 활성화 등 협력 논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6일 오후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제32회 정책소품 간담회'에 앞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을 찾아 내년이면 개관 10주년을 맞는 ACC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 시장은 이날 ACC에서 정책소품을 열고 1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흥행몰이에 성공한 융복합 미디어아트 콘텐츠인 ACC 기획 '디어 바바'와 '이음 지음' 전시를 관람했다.

강 시장은 또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상설전시 '문순으로 열린 세계: 동남아시아의 항구도시', 최근 문화장조원에서 개관한 특별전시 '최고의 소리란: 신촌에는 잊은 노래 유행할까' 전시를 둘러봤다.

이후 간담회에서 ACC의 의미 있는 성과와 나아갈 방향, 광주시와 ACC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과 전당 직원, 광주시 김요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최현호 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 내실화를 위한 국비 확보와 효율성 제고 ▲문화예술행사 주제·일정별 협의 ▲ACC 개관 10주년 대비 공동협력 ▲아시아문화전당 시설 확대 등 4대 협력 의제를 지속 논의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문화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국립문화예술기관인 ACC는 출판과 함께 광주시와 정책협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3 광주 비엔날레 파벨리온 운영,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광주예술의 전당 및 시립예술단 공연 기획 등을 함께 했다.

강기정 시장은 "신남방 등 아시아문화 거점 역할을 다해 달라"며 "광주시와 포괄적 협력으로 컬러콘텐츠 제작, 전시 유통 수요증 개발, ACC 주변 문화예술 환경 개선 등 '더 즐거운 광주'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시-벤처기업협 'AI산업 생태계 조성' 협약

광주시는 7일 벤처기업협회와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잠재력이 높은 AI기업 발굴과 기업 성장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김명술 광주전남지회 협회장, 한인배 분회 회원소통본부장, 정장영 경남지회 협회장, 김광영 대구경북지회 부회장, 심술진 부산지회 협회장, 유기달 전북지회 총괄이사, 김경석 울산지회 이사, 추영민 제주지회 수석

부회장, 김용승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잠재력이 높은 AI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 ▲인공지능 산업융합 기반시설(인프라)과 보유자원 활용 협력 ▲양측이 진행하는 사업·행사 공동 홍보 등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박선강 기자

광주시는 벤처기업협회와 협력 모델을 만들어 인공지능 집적단지 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 기반시설을 활용해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술 개발, 우수한 잠재력의 AI기업 발굴, 기업 성장 지원 등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 전남·경북도당 지방소멸 극복 6개 공동공약 발표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 협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이 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협약식을 갖고 지방소멸 극복과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를 위한 2대 총선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협약식에는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운영위원, 사무처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6개 공동 공약은 ▲농산어촌 기본소득 지급 ▲만민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친화 혁신 일자리 창출 ▲원스톱 교육·돌봄 혁신대책 추진 ▲지역 완결

형 의료체계 구축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농업재해 국가책임제 확대 추진 등이다.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과 경북이 인구감소지역 1·2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농어민을 넘어 농산어촌 주민 전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도 "공동공약은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농산어촌 기본소득은 농어민을 물론, 온 국민 기본소득의 미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공공기관, 올해 협업사업 공유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

광주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산하 27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구조혁신 우수 사례와 올해 추진할 협업 사업을 공유했다.

'공공기관과 함께 시민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그동안 일상적으로 진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 공유와 과제, 현안 중심 집단 토론 방식으로 변경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공공기관 구조혁신을 추진하면서 '시민이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는 동반자로서 공공기관의 역할

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혁신 2단계인 '시-공공기관 동행 전략'을 추진, 공공 분야 정책 결정과 집행에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존중해 공공기관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공공기관들이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함께 심층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을 통한 협업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협업 사업으로 ▲시민생활 지원 ▲문화·여가환경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 등 4대 분야 27개 과제를 발표했다. /박선강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